

**터키,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**

\* 관련 보고: 4/29자, 7/5자 지역정보

**□ 연립정권의 분열과 제1당인 민주좌익당의 분열로 조기총선이 확실시됨**

**연립정권의 분열**

- 의회가 하계 휴회에 들어간 상태에서 7월 7일, 연립정권의 강력한 축인 우익 민족주의행동당(MHP) 바젤리 당수는 총선을 금년 11월 3일에 실시할 것을 주장
- 이는 지난 주 에제빗 수상이 연립정권 지도자들과 회동하여 2004년 4월의 차기총선까지 현 정권을 끌고 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발표를 뒤집는 것임
- MHP는 조기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굳히고 연정이 구성되더라도 수상직 차지를 포함한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강경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MHP는 민족주의 성향의 고정적인 투표에 힘입어 투표의 15% 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 (여론조사의 지지율은 10% 미만이지만 부동표 44%를 감안)

**제1당의 분열**

- 부수상 후사메틴 오즈칸이 다른 두 명의 장관 및 16명의 의원과 함께 7월 8일 민주좌익당을 탈당
- 이는 에제빗이 사임 압력 속에 자신에 대한 방패막이를 하지 않는다고 오즈칸을 비난한 뒤에 나온 것임

- 오즈칸은 에제빗 수상의 오른팔로 불리며 3당 연정의 막후에서 연정의 결속을 이끌어와 실질적인 수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즈칸 일파는 에제빗이 후계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음

**□ 경제개혁정책의 집행 지연 가능성과 경제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가 커져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짐**

연립정권의 분열 소식으로 금융시장 다시 악화

	<u>7/4</u>		<u>7/8</u>	(변동률)
- 주가(ISE100):	9,060	→	8,912	(- 2%)
- 환율(리라/미 달러):	1,626,000	→	1,662,368	(리라 가치 2% 하락)

\* 7월 9일(현지 시각),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
**□ 그러나 조기총선에서 낙관적 가능성도 볼 수 있음**

정치상황이 명확해지면 금융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

- 조기총선 일자 확정, 정당간 새로운 제휴관계 형성 등 정치일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

개혁세력 결집의 가능성도 보임

- 터키 경제개혁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져온 경제장관 Kermal Dervis가 민주좌익당 등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에서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

→ IMF 차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혁 정책의 꾸준한 집행 가능성을 높임

선임연구원 강준수(☎3779-6645)  
E-mail: jkang@koreaexim.go.kr